



옛 명동 제일은행
럭셔리 품은
백화점으로 재탄생
니



Life

중근당
당뇨병 치료제
성과 '뚜렷'
L2



스포츠와 장인정신 한 켠레에... 운동화에 담긴 헤리티지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뉴발런스 '922' 시리즈

운동화 한 켠레에 추억이 고스란히 담겼다. 누군가는 운동화 한 켠레에 학창 시절을 떠올리기도, 누군가는 특정인을 떠올리기도 한다. 2030세대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휩쓸었던, '스티브잡스 운동화' 하면 떠올랐던 그 스니커즈. 뉴발런스 '922' 시리즈다.

뉴발런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다. 1906년 설립 이후 '스포츠와 장인 정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선사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다.

전 세계적으로 약 9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은 78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5개의 운동화 제조 공장과 영국 플림비에 1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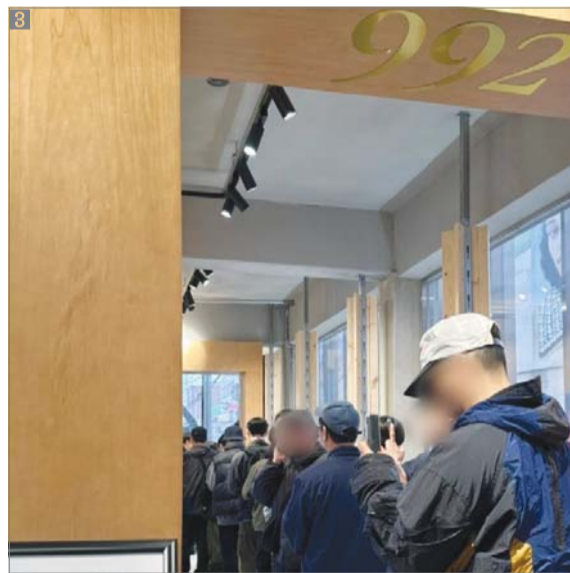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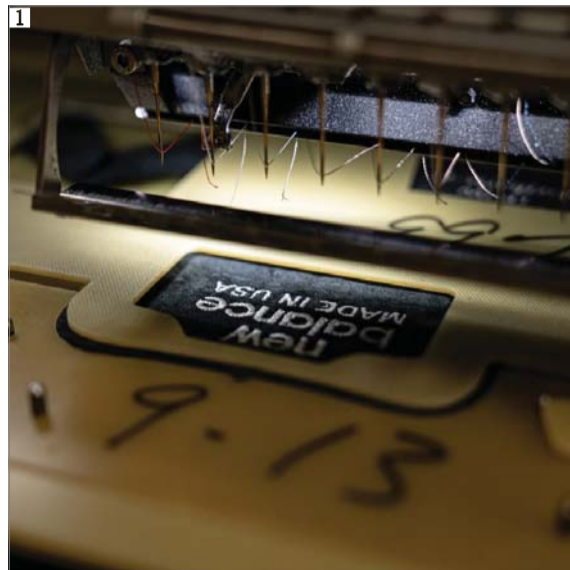
뉴발런스 '922' 시리즈는 뉴발런스가 브랜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06년 선보인 스니커즈다. 해당 제품은 메이드인 유에스에이(Made in USA) 라인으로 일반 제품과 차별화된 고급 소재와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운동화다.

브랜드 100주년 맞아 선보인 프리미엄 라인 '스티브잡스 운동화'로 전 세계적 인기 끌어 단종 후 14년 만에 발매... 품귀현상 일으켜 올해엔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전시 열어

특히,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가죽과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를 사용한 겔면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 앞꿈치와 뒤꿈치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뉴발런스의 '엡조브 에스비에스(ABZORB SB S)' 쿠션 기술이 적용돼, 오래 신어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엡조브 에스비에스는 걷거나 뛸 때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발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뉴발런스만의 고급 쿠션 기술이다.

뉴발런스 '922'는 브랜드 고유의 장인정신이 담긴 대표 모델이다. 신발 한 켠레를 만드는 데 7개 부서에서 약 90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그들은 72개의 조각을 활용해 80가지의 공정을 거쳐 신발 한 켠레를 완성한다. 총제작 시간은 약 2만 413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꼼꼼한 제작 과정을 거친 이 운동화가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잡스를 만났다. 스티브잡스가 공식 석상에서 블랙 터틀넥 셔츠와 데님 팬츠 그리고 뉴발런스 '922'를 신고 나타났다. 그렇게 이 스니커즈는 '스티브잡스의 운동화'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1, 2 뉴발런스 기원과 장인정신이 담긴 프리미엄 모델 이미지. 3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되는 992 팝업 스토어 방문객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이랜드



그랬던 뉴발런스가 단종 후, 2020년 2월 다시 복각돼 세상에 나왔다. 14년 만에 복각되는 뉴발런스 '922'는 발매된 지 5분 만에 온라인스토어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당시, 홍대, 강남 등 직영점을 비롯해 해당 상품을 발매하는 매장에서는 오픈 전부터 상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인파가 늘어났기도 했다.

그리고 2025년, 뉴발런스 '922'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랜드월드는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뉴발런스 '922' 팝업 스토어를 열고 해당 스니커즈를 다시 한번 추억한다. 팝업 전시는 ▲922의 아카이브 공간 ▲메이드(MADE) 제품 라인 및 '922' 제품의 전통을 조명하는 전시 공간 ▲메이드(MADE) 장인정신 체험존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뉴발런스는 국내 이랜드월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지난해 국내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단일 브랜드로서 1조 클럽에 진입한 것이다.

운동화 외에도 경쟁력 있는 패션 상품군을 선보이며 역량을 확장한 게 주효했다. 특히, 뉴발런스는 2016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뉴발런스 우먼스' 라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균형감과 곡선미를 강조한 차별화된 이미지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여성 고객층 확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운동화 외 경쟁력 있는 패션 상품군 선배 김연아 선수 모델로 꾸준한 성장세 이어가 마라톤 행사진행 등 러닝문화 저변 확대 오는 2027년부터 한국지사 설립 계획도

대표적으로 2016년 출시한 '연아 다운' 상품이 1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후 여성 고객이 선호하는 두께, 기장, 핏, 컬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겨울 다운 자켓을 매년 개선해 선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뉴발런스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 철학이 담긴 스포츠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뉴발런스는 러닝을 즐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러닝클럽 '엔비알씨(NBRC, Newbalance Run Club)'를 운영하고, '런 유어 웨이(Run Your Way)' 마라톤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러닝 문화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랜드 뉴발런스 관계자는 "뉴발런스는 고객의 건강한 경험을 돕기 위한 상품을 기획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난해 1조 브랜드로 거듭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내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품과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발런스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한국 지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모네와 고흐, 피카소까지 세종문화회관 온다... "서양미술 한눈에"
▲정몽규 체제 대한축구협회 집행부 구성 완료... 전무이사 김승희 /사진 뉴시스

▲클린스만 전 감독, 또다시 손흥민·이강인 총돌 언급하며 책임 회피
▲'아반단자와 작별' 흥국생명, 새 감독 영입 착수

▲수원시청, 흥천 실업배구연맹전 4연패 '강 스파이크'
▲크라프트, '썬더 티어 원' 조건 없는 환불...무료화 예정